

제 1 교 시

2022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공 통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먼저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이
관

[1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두가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신문을 무엇 하러 세 가지나 보난 말이야. 고양이도 낫짝이 있더라고 좀 염치가 있어야지. 한 번만 더 넣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테야.”

어떻게 붙잡았는지 아내가 배달아이를 잡아 닦달하는 소리였다. 영하는 혼자 이불 속에서 비실 웃었다. 그것은 바로 신문기자인 자기한테 하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다. 간접적이거나 아내한테서까지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냥 놔두고 신문대만 내지 말아요.”

“저 애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애들이라고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아세요? 이달치만 줄 테니 더 넣지 말라고 신문대를 주며 달래보기도 하고, 신문을 모아놨다 돌려주기도 했지만 견뎌낼 재간이 없다고요. 아무리 꺾진 거지도 저 애들 같진 않을 거예요. 구걸을 해도 유분수지, 벌써 여섯 달째라고요.”

“그 구걸하는 돈으로 우리도 월급을 타 먹고 있으니 너무 구박 말아요.”

“하지만 아무 필요도 없는 신문을 세 가지나 보잔 말인가요?”

아내는 이만저만 속이 상한 게 아닌 모양이었다.

그 뒤부터 신문이 날아들어 창에 맞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영하는 그 신문이 자기 가슴에라도 떨어지는 듯 가슴이 철렁했다. 그때마다 또 아내가 쫓아나갈까 겁이 났다. 제발 쫓아나가지 말았으면 하고, 영하는 그 배달아이보다 더 조마조마하게 가슴을 조였다.

하루는 무슨 일로 일찍 집을 나가다가 바로 대문 앞에서 그 배달아이와 부딪치고 말았다. 신문을 접어 비행기를 날리려는 순간이었다.

“야!”

배달아이는 힐끔 돌아보더니 후닥닥 도망쳤다. 마치 무얼 훔치다가 들킨 꼴이었다. 진창까지 밟으며 정신 없이 뛰었다. 운동화 한 짝이 벗겨져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다. 신을 집더니 제대로 신지도 않고 손에 들고 뛰었다. 골목을 거의 빠져나가서야 이쪽을 돌아보며 신을 신었다. 누구한테 붙잡혀 뺨이라도 얻어맞은 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다.

그 며칠 뒤 성탄절 아침이었다. 전날 저녁에 술이 많이 취했으나 다섯 살짜리 아들 녀석이 고장 난 장난감을 고쳐달라고 극성을 피우는 바람에 일찍 눈이 뜨였다. 외할머니며 이모들한테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그때 골목에서 ‘××일보요’하는 소리가 났다. 영하 집에서 제대로 구독을 하고 있는, 영하 회사의 경쟁지였다. 그 역시 신문은 아직 날아들지 않고 있었다. 언제나 그 신문이 먼저 날아드는데 오늘은 좀 늦는 모양이었다.

순간, 지난번 흙탕에서 튕겨 오르던 그 배달아이의 신발이 머리를 스쳤다. 영하는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 포켓을 뒤졌다. 오천 원짜리가 나왔다. 천 원짜리를 찾았으나 없었다. 그대로 손에 쥐고 대문간으로 나갔다. **신문대하고는 상관없이 운동화나 한 켤레 사 신으라고** 할 참이었다. 골목에는 눈이 허영게 쌓여 있었다. 저쪽에서 배달아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달려오던 아이가 영하를 보더니 우뚝 멈춰 섰다. 대번에 주눅이 들어 조그맣게 오그라들었다.

“이제 안 넣을게요.”

잔뜩 겁먹은 눈으로 영하를 보며 애원하듯 했다. 골목을 뛰어다녀 얼굴이 벌겍게 익어 있었고, 더운 김을 내뿜는 코끝에는 방울방울 땀방울이 돌아 있었다.

“그게 아냐.”

“이제 정말 안 넣는다니까요.”

소년은 금방 영하가 덜미라도 낚아채지 않을까, 저쪽 담에다 등을 대고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가며 말했다.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아냐, 내 말 들어봐.”

영하는 돈을 보이며 말했다.

“정말 안 넣을게요.”

소년은 거의 울상으로 슬금슬금 영하 앞을 지나더니 후닥닥 뛰었다. 저만큼 내빼다가 힐끔 돌아봤다. 순간, 눈길에 미끄러져 발랑 나가떨어졌다. 눈 위에 신문 뭉치가 흩어졌다. 소년은 이쪽을 힐끔거리며 뭉뚱 뭉뚱 신문을 거머쥐었다. 다시 이쪽을 돌아보며 도망쳤다. 영하는 소년이 사라진 데를 보고 서 있었다. 뉘나간 꼴로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대문을 닫고 들어왔다.

다음날부터 그 신문은 날아들지 않았다. 그 소년의 겁에 질린 눈만 커다랗게 남아 있었다. 그 눈이 자꾸 떠올랐다. 자리에 누울 때도 떠오르고 밥을 먹을 때도 떠올랐다. 기사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다.

영하는 그때부터 고향에 있는 자기 몫의 논밭이 떠올랐다. 그 얼마 뒤 음력설에 아내와 함께 고향에 다녀오면서 **넌지시 시골에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아내는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넘겼다. 영하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아내는 지금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는 눈으로 영하를 돌아보며 픽 웃고 말했다. 고향에 가면 언제나 그랬지만 그때는 더 푸근한 안도감이 들었던 것이다. 어디 먼 데로 나돌며 잔뜩 지쳐 빠져 자기 집에라도 돌아온 기분이었다. 사실은, 영하도 말로만 그랬지 여태 몸담아 오던 직장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게 빈 밥상 물리듯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영하는 아내와 함께 도시 변두리로 이사하지만, 신문기자를 그만두지는 못한다. 그곳의 노인들에게서 또철이의 불효 행각을 고발하는 기사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초고를 작성한다.

편집국에 들어섰다. 어쩐지 신문사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느껴졌다. 모두 입을 봉하고 담배만 빼꼼거리고 있었다. 항상 생글거리던 문화부 여기자마저 얼굴이 굳어 있었다. 대밭에서 와글와글 지저귀던 참새 떼들이 갑자기 지저귀던 소리를 뚝 그치는 경우가 있다.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이다. 그 정적 사이에서 한두 마리가 짹짹거리다. 다시 지저귀거나 모두 와르르 날아간다. 그 한두 마리가 짹짹거리는 소리는 괜찮다거나 위험하다는 신호인 모양이었다. 들판에서 끼룩거리며 먹이를 먹던 기러기 떼도 마찬가지다. 망보던 녀석이 뭐라 길게 소리를 하면 먹이를 먹던 기러기 떼가 모두 고개를 쳐들고 소리를 뚝 그친다. 바로 그런 분위기였다. 그때 **국장실에서 정치부장이** 나왔다. **우거지상**이었다.

“제길, 그런 것도 못 쓰면 무얼 쓰란 말이야?”

정치부장은 의자에 엉덩이를 내던지며 창밖을 향해 의자를 핑글 돌렸다. 담배에 불을 붙여 길게 연기를 내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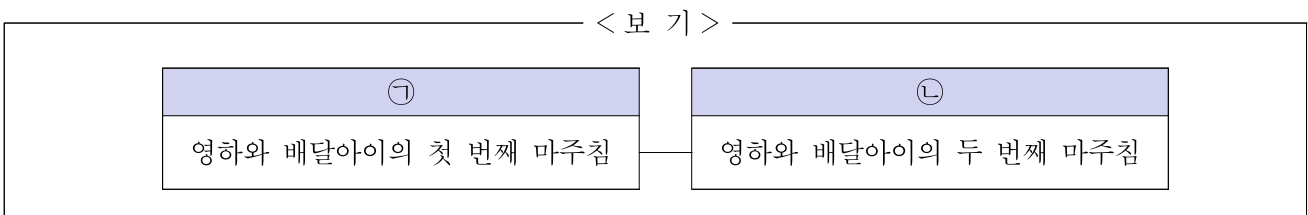
영하에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다. 신문에 내기만 하면 저 죽고 나 죽겠다고 독기를 피우던 또철이의 눈이었다. 영하는 **주머니에서 기사를 꺼내** 슬그머니 휴지통에 넣어버렸다. 그가 무섭다기보다 귀찮았다. 뒤미처 골목 영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좁쌀영감의 차가운 눈이 맨 먼저 떠올랐다. 셰퍼드의 시퍼런 눈도 떠올랐다. 갑자기 옛날 신문배달아이의 공포에 질린 눈도 지나갔다.

- 송기숙, 「개는 왜 짖는가」 -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 ② 액자식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오해가 풀리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요약적 진술을 통해 특정 인물이 살아온 내력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2.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보기>의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 도망치는 아이를 보고 영하는 아이의 이전 경험을 추측하고 있다.
- ② ㉠이 우연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면 ㉡은 영하의 의도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 ③ ㉡이 이루어진 것은 ㉠에서 아이가 도망가다가 신발이 벗겨진 사건과 관련이 있다.
- ④ ㉡에서 아이는 영하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해 여전히 ㉠에서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 이후 영하는 아이의 겁에 질린 눈을 떠올리며 아내를 말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던 시대를 살고 있는 신문기자를 통해 획일화된 언론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작품에서 인물은 언론의 자유가 억압된 현실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괴로워한다. 생계 때문에 신문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그는, 구박을 받으면서도 가난 때문에 신문을 넣어야 했던 배달아이에게 동질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진다.

- ① 배달되는 신문이 ‘모두가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것은 획일화된 언론의 현실이 드러난 것이겠군.
- ② 영하가 배달아이에게 ‘신문대하고는 상관없이 운동화나 한 켤레 사 신으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은 생계를 위해 신문을 넣어야 했던 아이에게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겠군.
- ③ 영하가 아내에게 ‘넌지시 시골에서 살’자고 제안하는 것은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④ ‘국장실’에서 나온 ‘정치부장’이 ‘우거지상’으로 ‘제길, 그런 것도 못 쓰면 무얼 쓰란 말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던 현실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⑤ 영하가 ‘주머니에서 기사를 꺼내’ 휴지통에 넣은 것은 언론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괴로움 때문이겠군.

[4 ~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맹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패권 다툼으로 인한 국가 간의 대립이 ㉠ 지속되었다. 인(仁)에 기초한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주장했던 맹자는 전쟁을 잘하는 자를 큰 죄인으로 여겼고, 침략 전쟁을 주장하는 주전론자(主戰論者)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당시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쟁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일견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그의 두 가지 입장은 어떻게 상호 모순됨 없이 성립될 수 있을까?

맹자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인 인(仁)과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인 의(義)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인간의 도덕 본성을 인의(仁義)로 규정했다. 이러한 도덕 본성은 하늘이 준 것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에 대한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맹자는 왕도정치, 즉 인정(仁政)을 ㉡ 주장한다. 통치의 근간이 되는 인의는 이익을 추구하는 리(利)와 구분된다. 인의는 공(公)이고 리는 사(私)로서, 인의는 모든 인간이 가진 선한 마음에 근거한 공공성을 갖는 것이나, 리는 자신과 타자를 배타적으로 경계 짓는 데서 비롯하는 사사로운 욕망이다.

이러한 리와 인의의 선명한 대비는 패도정치(霸道政治)와 왕도정치가 갈리는 근거가 된다. 리를 추구하는 패자(覇者)는 상대를 힘으로 지배하려는 자이다.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면 힘이 부족한 상대는 굴복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관계가 ㉢ 역전될 수도 있다. 따라서 패자는 늘 상대보다 강한 힘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대국(大國)을 소유하려 하게 된다. 반면 인정을 베푸는 왕은 신하와 백성들로부터 자발적인 복종과 신뢰를 얻기 때문에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 맹자는 백성을 돌볼 의무에 ㉣ 태만한 군주를 벌(伐)하여 바로잡는 것을 정(征)이라 하였다. 이처럼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한다는 명분을 갖는 정벌(征伐) 전쟁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맹자』에 나오는 연나라 정벌에 관한 대화는 정벌 전쟁이 어떤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맹자는 제나라의 대부인 심동이 “연나라를 정벌해도 됩니까?”라고 묻자, ㉤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이후 제나라가 연나라를 치자, 어떤 이가 맹자에게 “제나라에 연나라를 정벌하도록 권한 일이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이에 맹자는 ㉥ “아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만일 정벌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면, 천리(天吏)가 정벌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을 것이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천리란 누구인가? 맹자는 ‘천하에 대적할 이가 없으면 천리’라고 말한다. 이는 왕도정치를 펴게 되면 천하에 적이 없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는 인인(仁人)은 지극한 인(仁)으로 지극한 불인(不仁)을 정벌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이처럼 맹자는 도덕적 권위를 갖는 군주인 천리가 수행하는 정벌 전쟁을 의전(義戰)이라고 규정하였다.

맹자가 주장한 의전론(義戰論)은 그가 보여준 전쟁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는 외형상으로 모순되는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맹자의 정치적 이상이었던 인정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패자들의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죄 있는 자를 벌하기 위해 도덕적 권위를 가진 천리가 ㉦ 수행하는 의전은 필요한 것이다. 인정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으로서 정당성을 부여 받는 의전은 결국 그가 지향했던 반전쟁(反戰爭)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점]

- ① 맹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서로를 지배하려는 국가 간 패권 다툼이 있었다.
- ② 맹자는 도덕 본성은 하늘이 준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 ③ 맹자는 패도정치는 리(利)를, 왕도정치는 인의를 추구하는 데서 구분된다고 보았다.
- ④ 맹자의 의전은 실질적으로는 맹자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⑤ 맹자는 리(利)를 자신과 타자를 구분하는 데서 비롯하는 사사로운 욕망이라 하였다.

5. 밑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3점]

밑글의 ㉠은 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은 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	㉡
①	정벌의 명분	정벌 주체의 자격
②	정벌의 대상	정벌의 방식
③	정벌의 방식	정벌의 당위성
④	정벌의 당위성	정벌의 대상
⑤	정벌 주체의 자격	정벌의 명분

6. ‘맹자’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A국의 왕은 오로지 자국의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농사일에 바쁜 백성들을 징병하여 상대국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키웠고, 타국과의 전쟁에 승리하여 대국을 이루었다. 반면 B국의 왕은 인정(仁政)을 베풀어 태평성대를 이룬 결과 A국보다 강한 힘을 갖게 되었다. B국의 왕은 백성을 돌보지 않는 A국의 왕의 죄를 묻고 도탄에 빠진 A국의 백성들을 구하고자 A국과의 전쟁을 결정하였다.

- ① A국의 왕은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려 한다는 점에서 패자(覇者)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A국의 왕은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리(利)를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B국의 왕은 인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신하와 백성들로부터 자발적인 복종과 신뢰를 얻었겠군.
- ④ B국의 왕은 태평성대를 이루어 강한 힘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정(征)을 행하였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B국의 왕은 A국의 백성들을 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가 결정한 전쟁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군.

7.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됨.
- ② ㉡: 어떤 생각이나 결론·반응 따위를 이끌어 냄.
- ③ ㉢: 형세가 뒤집힘.
- ④ ㉣: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름.
- ⑤ ㉤: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냄.

[8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콜링우드는 예술을 상상력을 통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규정하며, 예술의 본질에 담긴 중요한 요소를 상상력, 감정, 표현으로 파악하였다. 상상력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콜링우드가 언급한 감정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콜링우드는 느낌을 감각과 감정으로 나누었다. 감각은 색깔, 소리, 냄새

[A] 같은 것을 느끼는 것으로 보편성을 가지며, 감정은 즐거움, 고통, 분노 같은 것을 느끼는 것으로 개인마다 나뉠대로의 특수성을 갖는다. 콜링우드는 감각에 감정이 부하되는 것으로 감각이 감정에 선행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선행한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갖거나 인과 관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감각과 감정은 동일한 대상을 통해 경험되는 것이므로 하나의 감각 경험으로 통합된다.

그런데 콜링우드는 감각이 동시적이고 순간적이라 모든 감각을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예술가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이러한 감각들을 인지하려고 노력한다면 다양한 감각 경험이 종합되어 특정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콜링우드는 이를 정서적 충전이라고 하였는데, 예술가는 이를 예술 작품의 표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개별화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콜링우드가 제시한 상상력은 허구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공상과 구별되는 것으로, 칸트의 생산적 상상력과 유사하다. 칸트는 생산적 상상력을 대상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대상의 다양한 형식을 포착하여 그 다양성을 결합하고 종합하는 선천적인 능력이라 하였다. 콜링우드는 상상력이 공상이나 환상과는 달리 지적 활동이라는 칸트의 관점에 동의하며 감정과 표현을 연결하는 고리를 상상력으로 ㉠ 보았다. 즉 예술가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끌어 낸 정서적 충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상상의 영역에서는 모든 시간이 현재화된다. 과거의 감각적 경험을 상상이 일어나는 현재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콜링우드는 감정의 표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표현하는 것과 서술하는 것을 구분하였다. 서술하는 것은 대상을 개념화하여 분류하는 것으로 일반화의 과정에 해당하며 객관적인 것이다. 반면에 표현하는 것은 대상이 주는 독특성을 의식하여 드러내는 것으로 개별화의 과정에 해당하며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구별되는 행위자 고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콜링우드는 예술가가 느끼는 감정들은 분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표현하기 전에는 스스로도 알 수가 없다고 보았다. 마치 시인이 현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느낀 모호한 감정들을 ‘시’라는 예술 작품을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자신의 감정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술가는 자신이 가진 고유한 감정이 작품에 반영되어 표현된 후에야 비로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상자도 감수성을 갖고 작품을 음미할 경우, 예술가의 마음에서 창조된 것과 동일한 감정 상태를 자신의 감정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콜링우드가 본 감각과 감정의 관계
- ② 칸트가 규정한 생산적 상상력의 개념
- ③ 콜링우드가 제시한 감각의 구분 기준
- ④ 콜링우드가 밝힌 감정 표현과 서술의 차이점
- ⑤ 상상력에 대한 칸트와 콜링우드의 공통된 견해

9.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어린아이가 분홍색 꽃을 보고, “와, 분홍색이 예쁘다.”라고 기뻐했다.

- ① 어린아이가 꽃의 색깔을 분홍색으로 느낀 것은 감각에 해당한다.
- ② 어린아이가 분홍색 꽃을 보고 느낀 기쁨은 감정에 해당한다.
- ③ 어린아이가 느낀 기쁨은 분홍색 꽃을 보고 얻은 감각에 부하된 것이다.
- ④ 어린아이가 분홍색 꽃을 본 것은 기쁨이라는 감정에 선행한다.
- ⑤ 어린아이는 분홍색을 본 것과 기쁨을 느낀 것이라는 두 가지 감각 경험을 한 것이다.

10. ‘쿨링우드’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무용가 A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의 고향’이란 주제의 즉흥 무용 공연을 하기로 하였다. 무용을 위해 A는 어릴 적 고향에서 경험한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바람 소리, 비 온 뒤의 흙내음 등을 떠올리며 알 수 없는 몽클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A는 몽클한 감정을 춤사위로 선보이며 그것이 어린 시절 느티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재워주던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① A가 과거 고향에 대한 모호한 감정을 춤사위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발휘되었겠군.
- ② A가 즉흥적인 춤사위를 선보이기 전에 느낀 감정은 스스로도 규정할 수 없는 분화되지 않은 감정이었겠군.
- ③ A가 햇살, 바람 소리, 흙내음 등의 감각을 통해 느낀 감정을 춤으로 표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거의 시간이 현재화되었겠군.
- ④ A는 자신이 느낀 감정이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재워주던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정서적 충전을 할 수 있었겠군.
- ⑤ 관객들도 감수성을 갖고 공연을 감상했다면 A의 마음에서 창조된 것과 동일한 감정 상태를 자신의 감정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겠군.

11. 밑줄 친 단어 중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 ① 그녀의 행동을 애교로 볼 수 없었다.
- ② 그녀는 조카를 봐 줄 사람을 구하였다.
- ③ 할머니는 늦게나마 손녀를 보게 되었다.
- ④ 기회를 봐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 ⑤ 의사 선생님께서는 오전에만 환자를 보십니다.

[12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오동은 고목이 되어갈수록
└ 제 중심에 구멍을 기른다
- [A] 오동뿐이라 느티나무가 그렇고 대나무가 그렇다
┌ 잘 마른 텅 빈 육신의 나무는
└ 바람을 제 구멍에 연주한다
- ┌ 어느 누구의 삶인들 아니라
└ 수많은 구멍으로 빛어진 삶의 빈 고목에
- [B] 어느 날
┌ 지나는 바람 한 줄기에서 거문고 소리 들리리니
└ 거문고 소리가 아닌들 또 어떠랴
- [C] 고뇌의 피리새라도 한 마리 세 들어 새끼칠 수 있다면
┌ 텅 빈 누구의 삶인들 향기롭지 않으랴
└ 바람은 쉽없이 상처를 후비고 백금칼날처럼
- [D] 햇볕 뜨거워 이승의 한낮은
┌ 육탈*하기 좋은 때
- [E] 잘 마른 구멍하나 가꾸고 싶다

- 복효근, 「고목」 -

* 육탈: 살이 썩어 뼈만 남음.

(나)

누에들은 은수자(隱修者)다. 자승자박의 흰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춘다. 혼자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에 존재의 변모는 시작된다.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된다.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 없이 가능했을까. 어느 날 해맑은 아침의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온다. 회저처럼 고통스러웠던 연금술의 긴 밤을 지나 비로소 하늘백성의 날갯짓이 시작되는 것이다.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누에의 왕은 없다. 누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하며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최승호, 「누에」 -

1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시선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심리적 추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13. 시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자연물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특정한 자연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 ② [B]: [A]에서 주목한 자연 현상을 유추를 통해 인간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
- ③ [C]: [B]에 나타난 삶에 대한 이해가 의문형 진술의 반복을 통해 확장되고 있다.
- ④ [D]: [C]에서 얻은 삶의 의미를 실천하지 못한 회한이 비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E]: [A] ~ [D]를 통해 얻은 삶에 대한 통찰이 화자의 소망으로 집약되고 있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존재는 스스로와의 결별을 통해 성숙한 존재로 완성되는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인고의 시간을 수반한다. 그리고 존재 스스로 성숙의 주체가 되어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극복할 때,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련은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 실현을 돕는 환경이 된다. (가)는 외부 세계로부터 주어진 시련에 대해,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스스로 만들어 낸 시련을 견뎌냄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생성되어 가는 성숙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가)에서 ‘구멍’은 ‘피리새’가 서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자를 포용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동굴’은 ‘하늘백성’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한 마리’가 ‘세 들어 새끼칠 수 있’는 것과 (나)에서 ‘누에의 왕’이 ‘구멍을 뚫어주지 않는 것은 모두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 실현에 도움을 주는 환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삶’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 구멍을 ‘가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에서 ‘날갯짓’을 시작하기 위해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스스로 성숙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가)에서 ‘한낮’은 ‘상처’가 후벼지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나)에서 ‘긴 밤’은 ‘고통’스러운 ‘연금술’이 진행 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가)에서 ‘육탈’은 ‘잘 마른 텅 빈 육신’을 위한 비움의 과정인 반면, (나)에서 ‘변모’는 ‘없었던 날개’가 창조되는 생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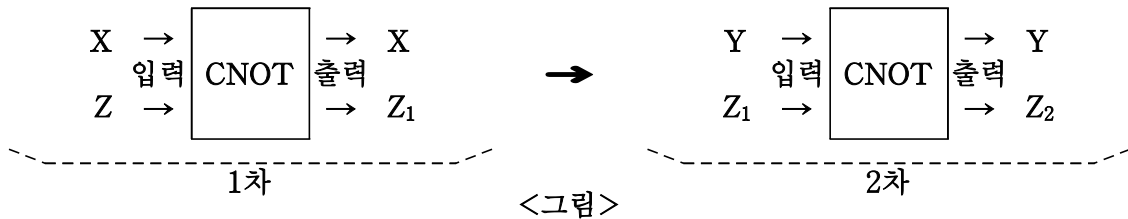
[15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시 세계에서 양자의 중첩은 여러 상태들이 겹쳐 있는 것이다. 이 중 특정 상태가 측정될 확률은 알 수 있지만 관측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어떤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는 관측을 해야 하는데, 거시 세계의 관측 행위로 인해 양자의 중첩이 붕괴되어 중첩 상태 중 어느 한 상태로 확정된다. 예를 들어, 미시 세계의 철수는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면, 관측 이전에는 서 있는 철수가 관측될 확률과 앉아 있는 철수가 관측될 확률만 알 수 있다. 이처럼 미시 세계의 철수는 서 있는 상태와 앉아 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데, 이 중첩 상태는 거시 세계의 선생님이 관측했을 때 붕괴되어 비로소 서 있는 상태나 앉아 있는 상태 중 어느 한 상태로 확정된다.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양자의 중첩 현상을 활용한 것이다. 기존의 컴퓨터는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를 사용하며, 비트는 0 또는 1이라는 확정적인 값을 갖는다. 이와 달리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사용하며, 큐비트는 0일 확률과 1일 확률을 가진 중첩된 상태를 갖는다. 따라서 기존 컴퓨터는 확정된 값을 입력해서 한번에 하나씩 연산하여 확정된 값을 출력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중첩된 큐비트를 한 번 입력함으로써, 중첩 상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연산을 한꺼번에 수행한다. 이런 원리상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는 오류를 검증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기존 컴퓨터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동일 비트를 세 번 이상 저장한 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오류를 보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컴퓨터는 정상 비트일 가능성이 오류 비트일 가능성보다 높기 때문에, 0을 000으로, 1을 111로 저장해두면 그것이 설령 010, 001, 011, 101로 읽힌다고 하더라도 ㉠ 각각의 원래 값을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쓸 수 없다. 왜냐하면 중첩된 큐비트를 복사하거나 비교하려고 그 값을 관측하는 순간 중첩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컴퓨터는 논리 게이트 CNOT(Controlled-NOT)을 통해 오류를 검증한다. 중첩된 큐비트가 오류일 가능성보다 정상일 가능성이 높은 양자 컴퓨터에서, 같은 내용의 연산을 통해 도출된 중첩된 큐비트 X와 중첩된 큐비트 Y가 있다고 하자. 연산에 오류가 없다면 X와 Y의 관측값은 같아야 한다. 관측은 중첩된 두 큐비트를 읽지 않고도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가이다. <그림>의 CNOT에는 위아래로 두 개의 입력과 두 개의 출력이 있는데, 위의 입력은 입력된 그대로 출력된다. 위의 입력에 0이 들어오면 아래의 입력은 그대로 출력되며, 위의 입력에 1이 들어오면 아래의 입력이 반전되어 출력된다. 반전이 되는 경우, 0은 1로 1은 0으로 바뀐다.



먼저 큐비트 Z는 0으로 고정한다. 그리고 X와 Z를 CNOT에 입력한다. X가 1인 경우 Z를 반전하여 출력한다. 출력된 값을 각각 X와 Z₁이라고 하자. 다음으로, Y와 Z₁을 CNOT에 입력한다. Y가 1인 경우 Z₁을 반전하여 출력한다. 출력된 값을 각각 Y와 Z₂라고 하자. 만약 Z₂가 0이라면 X와 Y는 같고, 이는 연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Z₂가 1이라면 X와 Y는 다르며, 이는 어디엔가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오류 검증의 과정에서 X와 Y의 값을 관측하지 않는다.

15.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상황을 가정하여 특정 대상의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특정 대상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다른 대상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특정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이론을 적용하여 특정 대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⑤ 유사한 두 대상의 공통점을 제시한 후 각각의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16. 밑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거시 세계에서는 관측을 통해 양자의 중첩된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겠군.
- ② 오류 비트일 가능성이 50% 이상이라면 다수결을 이용한 오류 검증은 실효성이 없겠군.
- ③ 미시 세계에서 중첩된 양자는 어떤 상태가 어느 정도의 확률로 있는지를 알 수 없겠군.
- ④ 기존 컴퓨터가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연산을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수행할 수 있겠군.
- ⑤ 기존 컴퓨터의 오류 검증에서 동일 비트의 저장 횟수를 늘리면 검증의 정확도가 올라가겠군.

17. 문맥을 고려할 때 ㉠을 추정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0, 0, 0, 1 ② 0, 0, 1, 1 ③ 0, 1, 1, 1 ④ 1, 0, 1, 0 ⑤ 1, 1, 0, 0

1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다음은 오류 검증을 위해 사용한 CNOT 게이트의 진리표*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다.

	X	Y	Z	Z ₁	Z ₂
㉠	(㉠)	0	0	0	0
㉡	0	1	0	0	(㉢)
㉢	1	0	0	1	(㉣)
㉣	(㉤)	1	0	1	0

* 진리표 : 논리연산의 가능한 모든 입력값의 조합을 열거하고, 각각의 조합에 대한 출력값을 나타내는 표.

- ① ㉠과 ㉣행의 Z₂가 각각 0이므로 ㉠은 0, ㉤는 1이다.
- ② ㉡과 ㉢행에서 X와 Y가 서로 다르므로, ㉢와 ㉣는 서로 다르다.
- ③ Z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X이다.
- ④ 오류 검증을 위해 관측하는 것은 Z₂이다.
- ⑤ X와 Y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한림학사 유연수는 정부인 사씨에게 자식을 얻지 못해, 교녀를 첩으로 들인다. 교녀는 유 한림과의 사이에 아들을 먼저 낳지만 이후 사 부인이 아들을 낳자 위협을 느낀다.

두(杜) 부인이 멀리 가매, 교녀가 등에 가시를 베푼 듯하여 동청에게 사 부인 해하기를 모의한다. 동청이 말한다.

“내 한 계교가 있으되, 두려하건댄 남자가 듣지 아니할까 하여 못하노라.”

교녀가 물으니 동청이 말한다.

“옛적 당나라 황제가 후궁 무 소의의 딸을 사랑하여 제 자식같이 하니, 무 소의 제 딸을 제가 놀러 죽이고, 황후를 모함하여 죽이려 하매, 황제 그 말을 곧이듣고 황후를 폐하고 무 소의로 황후를 봉하였으니, 이 계교를 행하면 남자가 뜻을 이루리라.”

교녀가 묻는다.

“자기 자식은 애중하면서, 남의 자식은 해코자 하는다?”

동청이,

“남자의 신세가 위태하여 마치 범을 탄 것과 같으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정녕 후회하리라.”

교녀가,

“이 계교는 차마 듣지 못하리니, 다른 좋은 모계를 획책하라.”

동청이 대답하지 않고 납매더러 이르기를,

“남자 사람됨이 잔약하여 이 계교를 행치 아니하면 우리 다 죽을 것이니, 네 틈을 타 행하라.”

이후 납매 하수코자 하되 틈을 얻지 못하더니, 하루는 장주가 난간에서 자더라. 사방을 살펴보니 다른 사람은 없고, 사 부인의 몸종 춘방이 설매와 같이 풀싸움하며 난간 아래로 가거늘 멀리 간 후, 즉시 올라가 장주를 놀려 죽이고, 설매를 따라와 이르되,

“네 전일에 ㉠ 옥지환을 도적하였으니 부인과 노야가 아시면 죽을 것이니, 어느 때에 노야가 너를 잡아 물으시거든, 여차여차하게 대답하면 죄를 면하고, 많은 상을 교 남자에게 얻으리라.”

하니 설매 응낙하더라.

장주의 유모가 장주가 깨었는가 하여 와 보니 장주가 칠규로 피를 흘리고 죽었거늘 대성통곡하더라. 교녀가 넘어질 듯이 와 보고 하릴없는지라 크게 울며, 이것이 동청의 한 짓인 줄 아나, 흉모를 행코자 함인 줄 아므로 급히 한림께 알린다. 한림이 들어와 본즉, 차악한 경상(景狀)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교녀가 통곡한다.

“이 일이 반드시 연전에 저주하던 사람의 짓이라 시비들을 문초하면 알리이다.”

한림이 즉시 형구를 갖추고, 사 부인에게 친신(親信)히 잔심부름하던 비복을 엄문하니, 장주 유모는

“소비가 공자를 안고 난간 위에서 놀다가 잠들기에 누이고 잠깐 밖에 나아갔삽더니 그 사이 변이 났사오니, 사죄할 뿐이요,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납매는,

“소비가 보오니 춘방과 설매가 난간 아래로 지나더이다.”

하고 말한다. 춘방과 설매를 엄형 국문(鞫問)하니, 춘방은 독형(毒刑)을 입어, 유혈이 임리(淋漓)하나 애매함을 고하고 설매는 처음은 춘방의 말과 같이 하더니, 나중은 소리를 크게 하여 하는 말이,

“대형벌을 당하여 죽기에 이르렀는데, 어찌 직고치 아니하리까. 부인이 소비와 춘방에게 분부하사 ‘장주 공자를 죽이면 큰 상을 내리리라.’ 하시기에 소비 등이 기회를 엿본 지 오래이나, 행치 못하였더니 오늘 지나다가 보온즉, 공자가 홀로 난간에서 자옵는데, 소비는 차마 하수치 못하옵고, 춘방이 올라가 놀려

죽었나이다.”

한림이 대로하여 춘방을 다시 엄형하니 춘방이 설매를 크게 꾸짖는다.

“무죄한 부인을 팔아 살기를 도모하니 견마라도 그 주인을 한 맘으로 섬기거늘 네 간사한 무리와 어울려 재물을 받고 주인을 해코자 하는다? 내 장(杖)을 맞아 죽을지언정 어찌 무죄한 부인을 해하리오. 황천 후토(皇天后土)는 부인의 원통한 누명을 씻어 주소서.”

하고 안색을 불변하고, 마침내 복초(服招)치 아니하고 장을 맞아 죽더라.

(중략)

이때 승상 엄승이 도사의 잡술로 천자를 미혹하게 하는지라, 한림이 상소하여 간하였더라. 상이 기뻐 아니하사 비답(批答)지 아니하시고,

“다시 간소(諫疏)를 올리면 죽을 죄로 다스리리라.”

하시니 한림이 불안하여 사직하고 집에 있더라. 하루는 아는 도사가 왔거늘 한림이 몽사번잡(夢事煩雜)함을 이르고 도사를 데리고 안에 들어가니 도사 두루 살펴보며 한림 처소의 벽을 헤치고 ㉞ 목인(木人)을 무수히 찾아낸다. 한림이 매우 놀라매 도사가 웃으며 말한다.

“이는 오직 상공의 애정과 관심을 요구함이요, 살인모해(殺人謀害)하는 저주가 아니오니 상공은 방심하소서. 그러나 상공 면상에 흑기(黑氣) 어리어 집을 떠날 수액(數厄)이 있으니 조심하소서.”

한림이 칭사(稱謝)하고 도인이 돌아간 후 가만히 생각하니,

“연전에 저주한 일이 다 사씨가 꾸민 짓이라 하였더니, 이제 사씨 나간 지 오래고, 나 있는 방을 고친 지 여러 달 아니 되었거늘 또 이런 흉한 일이 있으니 분명 가내에 악인이 있도다. 이러한즉 사씨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오.”

하고 요사한 물건을 다 없이한 후 정신이 들어 옛날 총명이 돌아오더라. 전일을 상상하여 보매 뇌우치는 마음이 점점 더하고 꿈이 깬 듯한데, 두 부인이 성도에서 서간을 부쳐 왔더라. 한림이 개봉한즉, 사씨의 출화(黜禍)당함을 모르고 쓴 것이라, 말씀이 명쾌하고 거듭 사씨를 부탁하였더라.

한림이 두렵고 죄스러워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생각하매 자기가 궤에 빠져 조강(糟糠)의 의(義)를 저버린 듯한지라, 심사가 편치 못하여 교녀와 정이 소원해지더라. 교녀가 크게 두려워 동청더러 사기(事機)를 이른다.

동청이,

“독약을 음식에 타 한림을 먹이라.”

교녀가,

“만일 먹지 아니하고 빨아버려 일이 잘못되면 큰일이 날 것이니 다른 계교를 생각하라.”

동청이 모해하기를 생각하다가 하루는 서현에 들어가니 마침 한림이 친구를 심방하러 나아갔더라. 동청이 서안을 상고하니 한림이 시세를 탄식하여 지은 글이 있는데, 승상 엄승을 논박하되, 오국학민(誤國虐民)한다 하였더라. 동청이 좋아서 교녀더러 일렀다.

“이제 유연수 없이할 방도를 얻었으니 쾌하도다.”

교녀가,

“어찌 이름이뇨?”

“천자가 도사와 단약(丹藥)을 믿으시고, 엄 승상이 그 일을 힘쓰거늘, 이제 유 한림이 천자를 비방하고, 엄 승상을 폄하여 글을 지었으니, 이 글을 엄 승상께 드리면 승상이 노하여 천자께 아뢰어 필연 귀양을 면치 못하리니 어찌 묘하고 쾌하지 아니하리오.”

교녀가 좋아서,

“남의 손을 빌어 저를 없이하면 어찌 쾌한 일이 아니리오.”

1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도사는 한림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② 납매는 교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주를 눌러 죽였다.
- ③ 유 한림은 천자를 미혹하는 승상을 비판하는 글을 지었다.
- ④ 춘방은 거짓 증언을 하는 설매를 꾸짖으며 죽음을 맞이했다.
- ⑤ 두 부인은 사 부인이 집에 없는 것을 모르고 한림에게 편지를 썼다.

2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조선 중기에 이르러 가부장제가 강화되면서 처첩 간의 갈등, 장자 상속으로 인한 적서차별의 문제 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부장의 현명함이 중요했는데, 가부장이 어리석으면 가문의 혼란은 한층 더 가중되었다. 또한 가부장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가장이 죽거나 부재하게 되면 가문은 쉽게 무너질 수 있었다. 『사씨남정기』는 처첩 갈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지위 확보를 위한 인간의 잔인성을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조선 사회 가부장제로 인한 폐해를 보여 주고 있다.

- ① 설매가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사 부인을 포함한 것은 처첩 간의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겠군.
- ② 동청이 엄 승상에게 유 한림의 글을 전하려는 계획은 가문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을 축출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겠군.
- ③ 동청이 유 한림에게 독약을 먹이자고 교녀에게 제안하는 것은 정쟁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문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동청이 납매에게 교녀의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인간의 잔인성을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유 한림이 무고한 사 부인을 의심하여 나가게 한 것은 가장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문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21.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와 ㉡는 모두 사 부인을 살해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② ㉠는 설매가, ㉡는 사 부인이 과거에 행한 부정적 행위의 증거물이다.
- ③ ㉠는 설매를 설득하기 위한, ㉡는 한림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④ ㉠는 한림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는 한림을 모해하려는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 ⑤ ㉠는 설매가 납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는 한림이 과거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22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무원은 국가 공권력의 대행자로서 공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집행한다. 만약 공무원의 직무 집행으로 인해 개인이 손해를 입을 경우 국가가 이를 배상할 수 있다. 국가배상이란 위법한 국가 작용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이다.

[A] 국가배상법은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여야 한다. 이때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에 규정된 직무가 아닌 경우라도, 겉으로 보기에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로 보일 수 있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둘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한다. 고의는 공무원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한 경우를, 과실은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셋째, 공무원의 위법 행위, 즉 법령에 위반된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행위의 위법성은 적극적인 행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것도 인정된다. 부작위란 공무원이 일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의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이다. 넷째,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법한 직무 집행 행위와 개인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라도 국가배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는 피해자가 공무원 중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이어서 다른 법령에 의해 손해재해보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별도의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대신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 배상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국가배상 책임을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 자기책임설은 국가가 공권력의 사용 권한을 공무원에게 맡긴 이상 공무원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즉 국가배상 책임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반해, ㉡ 대위책임설의 경우, 국가배상 책임은 손해를 가한 공무원이 부담해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지는 것이다. 국가는 불법을 행할 수 없다는 국가 무책임 사상에 근거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로 인한 손해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이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대신해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하면 공무 수행이 위축되어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마지막으로 ㉢ 절충설은, 공무원의 경과실은 직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만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때의 국가배상 책임은 국가 자신의 책임이 된다. 반면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행위까지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국가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고 공무원 개인의 책임만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때의 국가배상 책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된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로 손해를 입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해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국가배상 책임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 자기책임설에 따르면, 국가와 공무원 개인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대위책임설에 따르면, 피해자는 배상 책임자를 선택할 수 없으며 국가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절충설에 따르면 경과실의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만,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국가와 공무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 다음은 뒷글의 독후 활동 학습지이다. ㄱ ~ ㄴ 중 뒷글을 읽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3점]

————— < 학습지 > —————

○ 국가배상의 개념은 무엇인가?	ㄱ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ㄴ
○ 군인의 직무상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ㄷ
○ 대위책임설에서 공무원 개인의 직무상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ㄹ
○ 절충설에서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만 존재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ㅁ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23.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에 따라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
- ② 공무원이 자신의 행위가 법을 어길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법령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법령에 의해 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가 개인의 이익 보호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해당 의무의 부작용과 이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서, 법령에 규정된 행위가 아니지만 외형상으로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행위로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24. ㉠ ~ ㉣의 입장에 따라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공무원 A는 상급자인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업무 수행 중 A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A는 자신이 부상을 입은 것은 상급 공무원인 B의 직무상 권한을 넘어서는 무리한 지시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단, B의 업무 지시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A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이 아니다.)

- ① ㉠에 따르면, 국가는 A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는 B의 권력 남용에 대해 국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겠군.
- ② ㉣에 따르면, B의 무리한 지시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도 B가 아닌 국가가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겠군.
- ③ ㉡에 따르면, 국가가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B의 무리한 지시는 개인의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은 여전히 B에게 존재하겠군.
- ④ ㉢에 따르면, B의 무리한 지시가 경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A는 B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겠군.
- ⑤ ㉢에 따르면, B의 무리한 지시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A는 국가배상을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B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군.

25.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국가배상 책임은 국가의 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면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 ② 국가배상 책임은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담하는 것일 뿐 원래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 ③ 국가배상 책임은 공무원의 권력 남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으로, 공무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④ 국가배상 책임은 공무원 개인의 직무 집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원 개인이 국가배상 책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국가배상 책임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자기 책임이지만 무사안일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26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암괴석이 겹쳐 산을 이루었는데
 그 위에 **절**이 있어 물이 사방으로 돌렸네
 탐 그림자 강에 거꾸러져 물결 아래 일렁이고
풍경 소리 달을 흔들며 구름 사이로 떨어진다
 문 앞 나그네 배엔 **큰 파도**가 급한데
 대 아래 **스님의 바둑**은 한낮에 한가롭다
 한 번 **사신의 명** 받들고 왔다가 석별함에
 시 한 수 남겨 두어 **다시 오르길** 기약하네

- 박인량, 「사송과사주구산사(使宋過泗州龜山寺)」 -

(나)

어떤 지나는 손이 성산(星山)에 머물면서
 서하당(棲霞堂) 식영정(息影亭) 주인(主人)아 내 말 듯소
인생(人生) 세간(世間)의 좋은 일 많건마는
 엇디흔 **강산(江山)**을 갈수록 낮게 여겨
 적막(寂寞) 산중(山中)의 들고 아니 나시려고
 송근(松根)을 다시 쓸고 죽상(竹床)의 자리 보아
 저근덧 올라앉아 어떤가 다시 보니
 천변(天邊)의 떴는 구름 서석(瑞石)을 집을 삼아
 나는 듯 드는 양이 주인(主人)과 어떠한고
창계(滄溪) 흰 물결이 정자(亭子) 앞에 둘러시니
 천손운금(天孫雲錦)을 누라서 베어 내어
 잇는 듯 펼치는 듯 현스토 현스할샤
 ㉠ 산중(山中)에 책력(冊曆)* 없어 사시(四時)를 모르더니
 눈 아래 헤친 경(景)이 철철이 절로 나니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仙間)**이라

(중략)

공산(空山)에 쌓인 잎을 삭풍(朔風)이 거둬 불어
 때구름 거느리고 눈 조차 몰아오니
 천공(天公)이 호사로와 옥(玉)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萬樹千林)을 꾸며곰 낼세이고
 앞 여울 가리 얼어 독목교(獨木橋) 빗겨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닷 말고
산옹(山翁)의 이 부귀(富貴)를 남에게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은세계(隱世界)를 찾을 이 이실세라
 ㉡ 산중(山中)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萬古) 인물(人物)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聖賢)도 많거니와 호걸(豪傑)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無心)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블 귀는 어찌 씻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옛그제 빛은 술이 열만큼 익었나니
 잠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거문고 줄을 없어 **풍입송(風入松)*** 이었구나

- 정철, 「성산별곡(星山別曲)」 -

* 책력: 일 년 동안의 월일, 절기 등을 날의 순서에 따라 적은 책.

* 한기: 중국의 역사책.

* 일락배락: 흥했다가 망했다가.

* 기산의 ~ 씻었던가: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는 요 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씻었다는 고사.

* 박 소리 핑계하고: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핑계하고.

* 조장: 기개 있는 품행.

* 풍입송: 악곡 이름.

(다)

이 세상에 상(象)은 두 가지가 있으니, ㉠ 낮은 양(陽)이 다스리니 일이 있고, 밤은 음(陰)이 다스리니 꿈이 있다. 그러므로 운사(雲師)가 관직을 다스리고, 긴 벼들로 꿈을 접쳤던 것은, 이 두 가지가 아울러 행해지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바였다.

유문(孺文) **이동욱 군**은 이름난 진사로 벼슬이 시종(侍從)이다. 그의 선조들의 집과 묘가 소성(邵城)의 **소래산(蘇來山)** 아래 있다. 군(君)은 아침에는 일어나 관직의 사무에 이바지하고, 밤에는 늘 소래산에 대한 꿈을 꾸어, 집 이름을 ‘몽소(夢蘇)’라 짓고, 나에게 기(記)를 지어달라고 청했다.

사람의 사유하는 감각(感官)이란 참으로 신묘하여, 형체에 막히게 되지 않는다. 생각은 떠올라 곧 소래산에 미치는데, 소래산은 군의 고조, 증조와 조부, 부친이 강신(降神)하고 그 혼이 묻혀있는 땅이어서, ㉡ 군의 사모함은 그칠 때가 없어, 자는 중에 나타나 꿈이 되는 것이다. 또 몸이 이미 관직에 매여서, 비록 휴가를 청한다 해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하며, 비록 말미를 준다 해도 시일(時日)을 허비하게 되니, ㉢ 꿈이 아니면 어찌 한 번 눈 깜짝할 사이에 뜻대로 해볼 수 있을까?

아! ㉣ 가문에 복(福)과 화(禍)가 있으면 그 선조들이 꿈으로 많이 알려주니, 왕래하여 감통하는 이치를 여기에서 가히 징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군이 서울에 있어 소래산 꿈을 꾸는 것이니, 만일 소래에 있다면 응당 서울을 꿈꿀 것이다. 서울은 군이 나고 자란 곳이며, 군의 선대에 벼슬하고 노닐었던 곳인데다, 하물며 임금께서 임하신 곳이 아닌가?

나는 호서(湖西)의 **미산(媚山)** 백성이다. ㉤ 늘어서 서울에 몸 부치고 있으나, 매일 미산 꿈을 꾸다. 지금 그대의 현에 기를 쓰면서, 근원 거슬러 올라가고 뿌리로 돌아감을 깨닫는 것은 바로 인간의 정리(情理)가 같기 때문이다.

- 이용휴, 「몽소헌기(夢蘇軒記)」 -

2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나)는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으로부터 받은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가)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나)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7. (가)와 (나)의 시구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의 '풍경 소리'와 (나)의 '풍입송'은 삶에 대한 자족감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② (가)의 '큰 파도'와 (나)의 '창계 흰 물결'은 심미적 완상의 대상이다.
- ③ (가)의 '스님의 바둑'과 (나)의 '엇그제 빛은 술'은 삶에 대한 성찰을 환기하는 소재이다.
- ④ (가)의 '사신의 명'과 (나)의 '산옹의 이 부귀'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⑤ (가)의 '시 한 수'와 (나)의 '거문고'는 내면적 감흥을 외부로 표출하는 수단이다.

28.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흥취를, ㉡는 인간 세상과의 단절로 인한 화자의 고독감을 부각한다.
- ② ㉠는 자연과 합일된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는 자연과 괴리된 삶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③ ㉠는 화자에게 무상감을 느끼게 하는 자연의 모습을, ㉡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 세상의 부정적 모습을 환기한다.
- ④ ㉠는 화자가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수용하고 있음을, ㉡는 화자가 산중에서의 시간을 심성 수양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⑤ ㉠는 산중이 인위적인 시간 질서에 구애받지 않는 곳임을, ㉡는 산중에서도 인간 세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드러낸다.

29.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가) ~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선생님: 문학에서의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영역으로 그 의미가 제한될 수 있지만, 공간에 어떤 태도나 가치관이 투사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투사되는 가치관에 따라 공간들 간에 위계적 질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치관의 투사로 인해 공간이 가진 의미가 새롭게 파악되기도 합니다. (가) ~ (다)에 제시된 공간의 의미를 그 공간에 투사된 가치관을 중심으로 파악해 봅시다.

- ① (가)에서 ‘절’은 화자가 ‘다시 오르길 기약’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의미가 부여된 곳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좋은 일’ 많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인생 세간’은 ‘손’의 가치관이 투사된 공간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강산’을 ‘선간’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강산이라는 공간을 단순한 자연이 아닌 이상적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다)에서 ‘군이 서울에 있어 소래산 꿈을 꾸는 것’이라 말한다는 점에서 ‘나’는 ‘소래산’을 ‘서울’보다 위계적 질서상 상위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다)에서 ‘소래산’은 효라는 유가적 이념에 기반한 의미가 환기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조상을 중시하는 ‘이동욱 군’의 가치관이 투사된 곳이라 할 수 있겠군.

30.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몽소헌기」는 몽소(夢蘇) 즉 ‘소래산을 꿈꾼다’는 뜻을 지닌 건축물에 담긴 의미를 서술하고 있는 작품으로, 꿈꾸는 대상으로서의 소래산만큼 중요하게 제시되는 것이 꿈꾸는 행위 자체이다. 글쓴이는 작품을 통해 현상 혹은 행위로서의 꿈의 의미, 바라는 바가 나타나는 꿈의 원리나 현실적 제약을 초월하는 수단이 되는 꿈의 효용, 그리고 대리 만족을 가능하게 하는 꿈의 작용을 서술함과 동시에 꿈이 주체나 대상과의 결합에 제한이 없다는 측면에서의 꿈의 보편적 성격을 기술하여 ‘몽소헌’이라는 건축물에 담긴 의미를 완성하고 있다.

- ① ㉠: 낮의 일과 밤의 꿈에 대등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꿈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현실에서 그리움과 사모의 대상이 꿈으로 이어지는 꿈의 원리가 제시되고 있다.
- ③ ㉢: 공간적 거리에 따른 현실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꿈의 효용이 제시되고 있다.
- ④ ㉣: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는 바에 대한 대리 만족을 가능하게 하는 꿈의 작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 꿈이 ‘나’, ‘미산’과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주체나 대상에 제한이 없는 꿈의 보편적 성격이 제시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관